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1. 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ISIS 가담 외국인 포로 강제송환 시작
 - 11.11 로이터 통신은 터키 정부가 수차례 예고한 대로 구금 중이던 美(1명)·獨(8명)·英(1명)·덴마크(1명) 출신 등의 ISIS 조직원을 추방했으며, 추가로 프랑스인 11명을 포함하여 다른 유럽국가 출신 포로들의 송환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
 - * 터키의 추방 센터에는 813명이 대기 중이며, 이들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
- 伊 경찰, 이슬람 사원 폭파 모의한 극우주의자 일당 검거
 - 11.12 이탈리아 경찰은 시에나 북서쪽 '콜레 디 발 델사'에 있는 모스크의 가스 파이프를 터뜨려 건물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운 테러용의자 일당(12명)을 테러모의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
 - * 경찰은 용의자들이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추종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갖고 국가체제 전복 목적을 가진 단체를 설립하려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

미 주

- 美, 내년大選에 인종차별적 폭력사태 급증 우려
 - 11.10 NYT는 美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(FBI)이 내년 11.3大選을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유대인·흑인·히스패닉·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범죄 및 정치적인 유혈사태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
 - * 「트럼프」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행이 인종적·정치적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

아 · 태평양

- ISIS,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여성 집중 포섭
 - 11.10 CNN은 싱가포르 당국이 지난달 ISIS 극단주의에 동화되어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30대 인니인 가정부 3명을 체포*했는데, ISIS가 싱가포르·홍콩 등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을 포섭해 돈벌이 수단(cash cows)으로 이용하거나 테러를 자행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보도
 - * 2명은 시리아행을 계획하고 이중 한명은 자살폭탄테러범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
- 필리핀, 남부 민다나오섬 계엄령 해제 가능성 시사
 - 11.12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“계엄령은 군경의 권고에 달려있지만, 정부는 계엄령 없이도 테러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”며, 남부 민다나오섬 계엄령이 올해 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
 - * 필리핀 정부는 '17.5월 ISIS 추종 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섬을 점령하자 該지역에 계엄령 선포(3회 연장, '19.12.31限)

중 동

-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지휘관 사살
 - 11.12 AP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‘이슬라믹 지하드’의 최고사령관 「바하 아부 알아타」(42세)의 주거지를 공습해 제거했다고 보도
 - *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다짐하는 등 兩側 충돌 우려 점증

아 프 리 카

- 국제위기그룹(IGC), 아프리카 사헬 금광 “ISIS·알카에다 자금줄” 주장
 - 11.12 AFP통신은 무장단체들이 '16년 이후 국가권력이 약화된 북아프리카 말리·부르키나파소·니제르 지역의 금광을 무단점거하면서 금 밀매를 통해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, 특히 ISIS·알카에다 등의 새로운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IGC 보고서를 인용 해 보도
 - * 연간 말리 20~50톤, 부르키나파소 10~30톤, 니제르 10~15톤의 금이 생산되며 약 2~5조원 추산

호주 멜버른, 차량돌진·흉기난동 테러

- '18.11.9 14시경 호주 멜버른 도심 거리에서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(男, 31세)에 의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 테러로 1명 사망·2명 부상
 - 테러범은 바비큐용 가스용기 여러 통을 실은 픽업트럭으로 건물을 충격한 이후에 차량에 불을 붙이고 흉기로 주변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였으며, 출동한 경찰과 대치 중 충격으로 사망
- 호주 당국은 同인을 3년 전부터 극단주의자로 관리하며 '15년에는 ISIS 가입을 위해 시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권을 취소하기도 하였으나, 同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실패
- 테러 직후, ISIS는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배후를 자처하며 “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작전 중인 연합국을 겨냥한 것”이라고 주장

< 차량돌진 공격 >

- 佛 니스 테러('16.7) 이후, 로테크(low tech) 테러수법으로 부각되어 모방 테러·범죄 빈발

< 차량돌진 주요사건 >

- ▷ ['16.7.14, 프랑스 니스] 트럭이 해안가 퍼레이드 행인들에게 돌진후 총기 난사(사망 86, 부상 436)
- ▷ ['16.12.20, 독일 베를린] 트럭이 크리스마스 시장 행인들에게 돌진(사망 12, 부상 56)
- ▷ ['17.4.7, 스웨덴 스톡홀름] 트럭이 도심 백화점 앞 행인들에게 돌진(사망 4, 부상 15)
- ▷ ['17.6.3, 영국 런던] 승합차가 교량의 人道 행인들에게 돌진후 칼부림(사망 22, 부상 59)
- ▷ ['17.8.17, 스페인 바르셀로나] 승합차가 광장의 행인들에게 돌진(부상 6)
- ▷ ['17.11.1, 미국 맨해튼] 소형 트럭이 허드슨강 자전거도로 사이클 행렬에 돌진(사망 8, 부상 12)
- ▷ ['18.4.9, 독일 뮌스터] 소형 트럭이 도심 야외식당 테이블席에 돌진(사망 3, 부상 20)
- ▷ ['18.4.24, 캐나다 토론토] 밴차량이 人道 행인들에게 돌진(사망 2, 부상 10)
- ▷ ['19.1.1, 일본 도쿄] 승용차가 새해맞이 행사 중인 행인들에게 돌진(부상 8)

- (특징) △ 사전 인지 곤란, △ 흉기 난동 등 후속 공격을 수반하는 복합테러 경향, △ 다중 밀집지 공략 등으로 인명피해가 대형화될 위험성 내재